

고창북중, 녹색성장 학생생활 발명대회 발명대상 수상

고창북중학교(교장 전양희)는 2023 대한민국 녹색성장 학생생활 발명대회 전국 본선에 진출하여 주최측 최고상인 영예의 발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주환 학생

올해로 14회째인 대한민국 녹색성장 학생생활 발명대회는 지난해는 청소년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전기에너지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생활발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관련분야 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는 물론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발명진흥회의 후원을 받아 전기공학신문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시상식은 오는 8월 9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에 영예의 발명대상을 수상한 노주환(3학년, 지도교사 최재은)은 초등학교때부터 발명활동을 열심히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IP(지식재산)분야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발명대상에 남매(중등부 대표 노주환, 초등부 대표 노윤하)가 나란히 수상, 이번 전국대회에서도 노주환 학생의 여동생인 노윤하(대선초등학교 5학년)학생이 금상을 동시 수상하게되어 그 기쁨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노주환 학생의 여동생인 노윤하 학생은 이미 전국단위 영예의 대상(2021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 대상, 2022 전국생활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대상)을 두 번이나 차지한 우수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주환 학생의 형, 노수민(고창북고등학교 졸업, 현재 한양공대 2년) 학생 또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로 말레이시아국제발명경진에서 세계최초 3관왕(금상, 은상, 특별상)을 수상하고 전국 최다 특허보유 기록으로 발명왕 정부행사에 초청되어 대통령령 나란히 VIP내빈으로 참석한 화려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법인 중앙학원(이사장 김미숙)의 적극적인 우수 인재 영입 정책에 따라 노수민, 노주환 학생에 이어 여동생인 노윤하 학생 또한 고창북중학교, 고창북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향후 이들 삼남매의 행보가 주목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지평선로터리클럽,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

성암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춘자)는 지난 29일 국제로터리 3670지구 김제지평선로터리클럽(회장 정훈)에서 관내 성암노인복지센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10만원 상당(쌀, 계란, 복숭아)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염 경보 발표 중에도 국제로터리 3670지구 김제지평선로터리클럽 회원일동 및 센터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기탁 후원 물품을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였다.

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김모 어르신은 구슬땀을 흘리는 로터리 회원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며 "이 더위에 여기까지 찾아와 선물을 전해주고, 대화를 나눠주시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후원자 일행의 차량이 떠날 때까지 골목에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지평선로터리 정훈 회장은 "기쁜 일은 서로의 나눔을 통해 두 배로 늘어나고 힘든 일은 함께 주고받으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슬로건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암노인복지센터 이춘자 센터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국제로터리 3670지구 김제지평선로터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허재훈·배영규 대표,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

정은종합건설 허재훈 대표와 정민건설 배영규 대표가 최근 장수군에 직접 방문해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하고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허재훈 대표는 경남 고성군 출생으로 경남 거창에 본거지를 두고 정은종합건설과 정민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영규 대표는 경북 성주군 출생으로 성주군에서 정민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가 고향이 아님에도 우리군에 기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따뜻한 마음 잘 전달, 복구에 최선을”

도내 기업인·단체, 전북도에 수재민 지원 성금 등 기탁 줄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회장 채정숙), 전북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회장 이승창), 지음소프트(대표이사 남정훈)는 지난달 31일 전북을 방문해 수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간편식품, 냄비, 주방세제 등 3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기탁했고,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의 지음소프트 대표이사는 각각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서 기탁한 상품은 이번 호 추후 피해가 심한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 수재민 등에게 전달된다.

전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지음소프트 남정훈 대표이사가 기탁한 총 2,000만원의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수재민 및 취약계층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2010년에 설립돼 전주시 흥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2,407개사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료 지원사업 등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는 2012년에 설립돼

회장단 7명과 함께 선도기업 관련 발전 방안 마련과 정책 제안 제시 등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인 선도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음소프트는 2017년에 설립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소재하고 직원 11명과 함께 스마트공장, 빅데이터와 스마트팜 시스템 등 개발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값다"며 "이 따뜻한 마음을 도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75대 김한근 정읍경찰서장 취임

제75대 정읍경찰서장에 김한근 총경이 취임했다. 지난날 3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김한근 서장

김한근 서장은 "정읍경찰서에 부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기반을 구축하고 전개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중심 문화가 조성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한근 서장은 정읍 출신으로 인상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청 방배서 형사과장, 강남서 수사과장, 영등포서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제79대 김철수 남원경찰서장 취임

남원경찰서 제79대 남원경찰서장에 김철수 전북청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장이 7월 31일자로 취임했다.



김철수 서장

김철수 서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부서별 주요 현안과 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서장은 남원 추천면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학부후보 48기로 입문해 2022년 총경으로 승진 경찰청 감사관실 인권보호계장을 거쳐 전북청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취임사에서 김 서장은 "경찰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 학생·주민들 대상 활발한 활동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팀장 김민아)는 지난달 27일~28일 2일에 걸쳐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행사를 진안군 상리 세교네모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은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생활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김민아 팀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서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품소 느끼며 실천하는데 큰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EM모스큐브와 공기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환경 체험활동을 하고, 도서관 주변과 시장주변을 돌며 비닐봉지와 페트병 등 버려진 생활 쓰레기도 수거하는 등 의미 있는 교육을 실천했다.

2012년 발족한 강살리기네트워크는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민, 관, 학 거버넌스 단체로 마을 앞 도랑의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 개선해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마을 분리수거함 설치, △농약 빈병 분리수거



홍보, △주민 학생 대상 환경 교육 및 하천 정화, △도랑 안 수중정화식물 식재,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화단 조성, △강 살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인영진 변호사 초청 전 직원 갑질 예방 교육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 강사로 등록된 인영진 변호사를 초청, 시청 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갑질과 을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흥미로운 영상과 실제 징계 사례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강사는 "갑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듯이, 정당한 업무지시는 갑질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을의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라며, 조직 내 갑질 예방을 위해서는 '갑' 뿐만 아니라 '을'도 함께해야 함을 강조했다. 남원시 감사실장은 "높아져 가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대응하여 갑질 예방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보호하는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갑질·을질 실태조사, 간부 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조직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고창경찰, 중간관리자 읍주운전 근절 다짐결의대회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달 31일 각 과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읍주운전 예방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정기인사, 하계휴가로 인한 회식 및 사적 모임 증가가 예상되고, 부안 새민공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캠프대회에 앞두고 소속 직원들의 읍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단 한 건의 읍주운전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석현 고창경찰서장은 "중간관리자들이 술선수범해서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읍주운전 근절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창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취약 가구 방역소독 재능기부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난달 28일, 관내 주거환경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추진하였다.

서덕교 위원장은 (유)서남환경 대표 등(洞)과 협약을 맺어 해마다 방역소독과 나눔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

한편, 도동동은 1일 1가구 방문 소분행정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들을 발굴해, 7월 시책사업 일환으로 방역소독 업체의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동참해 방역소독을 시행했다.

김윤자 도동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두루 살피며, 더욱 싹새 나는 행복하고 따뜻한 도동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대 학군사관후보생들, 4주 간 입영훈련 돌입

전북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33명이 7월31일 하계 입영훈련 입소를 위한 신고식을 갖고 4주 간의 하계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날 신고식을 마친 학군사관후보생들은 오는 25일까지 충북 괴산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입소해 다양한 입영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훈련에 나서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입소 신고식에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마땅히 응원 받아야 할 일이지만 한여름 무더위와 맞서 싸워야 하는 환경이기에 격정적 앞선다"면서 "그러나 불굴하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을 명심하고, 훈련기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과 같은 늠름한 모습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